

20일 방장 추대 고불총림 백양사 지선스님



“욕망 쫓는 세상 반칙만 난무 후손에 물려줄 자산 고민해야”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한국도 낙관하기 힘들다.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비교육적인 작금을 인문 과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과학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 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의 최고 책임자인 방장 지선 스님은 현 세태를 냉철하게 진단하면서 권력 집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

간도 없이 바쁘기만 하고, 그 과정에서 정도를 넘어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지선 스님은 인디언의 시를 인용했다.

“인디언은 빠르게 말을 몰다가도 말이 울음소리를 내면 갑자기 멈춰섭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 영혼이 미쳐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만 가

지선 스님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참 딱하다”고 밝혔다.

“인생 경륜은 쉽게 쌓이지 않습니다. 정치도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민주당과 ‘불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초선 의원도 정치라는 용광로에 들어 가면 녹아버립니다. 대선에서 과감하게 불꽃마를 선언했던 김근태 선생이 생각납니다.”

그는 정치인과 교육자가 못한 일을 종교계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성과 불성을 개발해 ‘인생의 무상함’을 깨우쳐 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하지만 많은 종교가 이익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많은 종교인이 집을 잃어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또 사람들이 스스로에 의지하고, 스스로에 귀의하고, 스스로를 스승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줬으면 합니다. 감각적, 정신적 욕망의 무상함을 알고 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선 스님은 1972년 영광 불갑사 주지로 지역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가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지선 스님은 1946년 장성에서 태어나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제주 관음사, 장성 백양사 주지, 조계종 종정 사서실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글·사진=김경인기자 kki@

“국정원은 정권 위해 있는 조직인가” 비판

“인생 무상 깨우쳐 주는 것이 종교가 할 일”

게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할 때는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다.

오는 20일 방장 추대법회(승자 고불법회)를 앞두고 15일 백양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지선 스님은 종교계를 비롯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백양사가 역사가 깊은 만큼 애환도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 불교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해 급변하는 세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종교적 문제가 야기되면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선 스님은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주위를 둘러볼 시

려고 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느냐인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선 스님은 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0·27 법난 등을 겪으면서 민주와 운동에 투신했다. 특히 광주 문민정사를 거점으로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고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과 갑첩 조작사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 등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특히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나라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 있는 조직”이라며 “실적을 위해 약자는 키워서 잡아먹고, 강자는 조작해서 잡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5월 1일~11일 첫 관광주간…광주·전남, 음식 숙박업 최대 50% 할인



5월 초 ‘관광 주간’에 맞춰 광주·전남 등 전국 팔도강산 관광지에서 숙박업소, 음식점, 코레일 등 관광업소 1000여곳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11일 관광 주간에 244개 지자체, 23개 정부 부처·기관, 1168개 관광 업소가 동참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여행·체험 행사와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내수를 키우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관광 주간 제도를 마련, 봄(5월 1~11일)과 가을(9월 25일~10월 5일) 두 차례 시행한다.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광주시티투어버스, 광주패밀리랜드 등 관광 인프라를 비롯한 20여곳의 숙박업소와 40여곳의 음식점소에서

10~50%의 할인 행사를 연다.

전남도에서도 경도리조트&콘도와 가학산 자연휴양림, 탐양리조트가족 호텔 등 숙박업소 60여곳과 맛집 70여곳이 10~50%씩 할인에 동참한다. 또 전국 숙박업소, 음식점, 코레일 등 대중 교통, 쇼핑점, 공연장 등 관광업소 등에서도 입장료와 부대 시설 이용료 등을 대폭 할인해준다. 다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주간 홈페이지(spring.visitkorea.or.kr)에서 주요 여행 상품과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관광 주간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에 근로자 휴가 사용을 장려하도록 요청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

업으로 하여금 3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부처장·차관과 기업 대표 등도 여름 휴가를 관광주간에 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항공기 1717편 증편, KTX 운행 87회 확대, 시외·전세버스 600여대 등도 투입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관광 주간이 새로운 여행 성수기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관광 명소를 발굴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가 문화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이 여행을 하려면 더하면 추가 소비 2조5000억원, 일자리 5만개 창출 효과가 난다”면서 “2017년에는 국내 관광 지출을 30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전국 최고

1분기 20.5% 올라 전국평균의 11배…3.3㎡당 평균 735만원

올해 1분기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이 3.3㎡당 평균 분양가 기준으로 730여만원에 달하는 등 광주가 전국 최고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820만4000원으로 전분기보다 1.8%, 작년 동기보다 3.0% 각각 상승했다.

15일 대한주택보증 “2014년 1분기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 결과, 광주의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734만6000원으로 전분기보다 20.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다 14.5% 상승했다. 광주의 평균 분양가격은 2011년 8월 이후 줄곧 500만~600만

원대에 머물다 올해 1월 700만원을 넘어선 뒤 3월말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분기 광산구와 북구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기준 분양가를 크게 웃돌면서 광주의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다음으로 분양가가 오른 곳은 부산(896만5000원)으로 전분기보다 10.5%, 작년동기보다 4.7% 상승했다.

인천(2.0%), 울산(0.8%), 대구(0.3%), 대전(0.2%)도 분양가가 모두 올라 6대 광역시가 평균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전북(-5.0%), 서울(-1.0%), 강원(-1.

4%), 충남(-1.2%), 경기(-0.7%) 등에서는 분양가가 하락했다.

한편, 1분기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총 2만6175가구로 전분기보다 3만2968가구가 줄었고, 작년 동기보다 3800가구 줄었다.

6대 광역시의 분양물량(1만681가구)이 전국 분양물량의 41%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서도 부산(5111가구), 대구(2832가구), 광주(2578가구)의 물량이 광역시 전체 물량의 9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6855가구, 지방에서는 8763가구의 민간아파트가 신규 분양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16% 줄어 들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기아차, 광주 U대회 후원

수송차량 1500대 제공·KBS 주간 방송사 선정

기아자동차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공식 후원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광주 U대회 조직위)는 15일 기아자동차 압구정동 사옥에서 강운태 조직위원장(광주시장)과 기아차 이삼승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후원 등급은 최고인 ‘글로벌 프리미엄 파트너’로, 대회기간 동안 VIP 의전차량을 비롯,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170개국 2만여명의 수송을 위한 K9, K7 등 승용차와 승합차, 전차, 버스 등 차량 1500여대를 모두 지원한다.

강운태 조직위원장은 “광주의 대표 기업인 기아차가 최고 등급 후원사로 참여해준으로써 대회 준비에 큰 힘을 얻게 됐다”면서 “U대회는 세계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들이 참여하는 종합스포츠 대회라는 점에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아차에도 좋은 마케팅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서울 KBS 사옥에서 KBS와 광주 U대회 주관 방송사 선정 MOU를 체결했다. KBS는 광주U대회 개폐회식을 비롯한 경기의 국제신호를 제작하는 국제방송센터를 운영하고 각국 방송사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하게 된다./박진표기자 lucky@

미세먼지 경보낸

내년부터 휴교령

내년부터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민보건에 초점을 맞춰 휴교, 차량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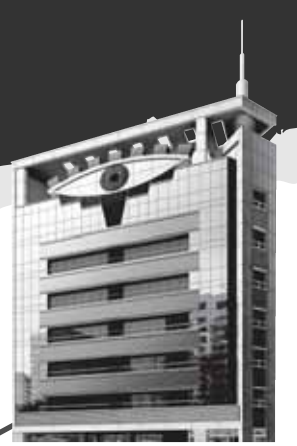
1단계 주의보 발령 때는 도로먼지저제 차량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2단계 경보 발령시에는 학교 휴교,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정기에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북개사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통 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